

2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1. 회의 일시 : 2026년 2월 11일(수) 15:00
2. 회의 장소 : 신세계쇼핑 회의실
3. 참석 인원 : 15명
4. 회의 내용 : 붙임.

[회의 내용]

- **방송사** : 고객의 소리 처리현황 공유, 시청자위원 보궐 위촉 내용 공유
- **시청자위원회** : 2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트렉스타 롱패딩 방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가격, 쇼호스트들의 홍보멘트까지 모든 면에서 흠잡을 곳이 없고, 강하게 구매욕을 일으키는 방송이었습니다. 다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라이선스 브랜드가 무엇인지 짧게 설명해줘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방풍력을 강조하기 위해 옷 앞에 촛불을 두는 장면은 상당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촛불 외에 바람개비 같은 다른 시연으로 대체하거나, 위험할 수 있으니 모방하지 말라는 자막이라도 표시해주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방송사**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추후 방송에서는 라이선스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풍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는데 다시 보니 위험해 보인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추후에는 의견대로 모방하지 말라는 자막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저는 비버리힐즈폴로클럽 케이블니트 방송을 봤습니다. 방송 화면 그래픽과 쇼호스트 멘트를 통해 제품 구성과 기본 판매가격 무이자 할부를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다만, 행사카드 관련 정보와 무이자 할부 카드사에 대한 정보는 방송에서 안내가 미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쇼호스트는 방송 중 미국 브랜드임을 수차례 강조했으나, 실제 제조국은 화면 내 자막을 통해서만 중국 OEM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소재와 관련해서는 쇼호스트 음성과 화면 자막을 통해 모두 제공하였으며, 화면 클로즈업을 활용하여 패브릭 질감을 시청자가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하였습니다. 사이즈별 착용감을 설명하면서 반사이즈의 경우 한 치수 크게 선택할 것을 권장하는 등 구매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성용 제품은 방송에서 판매하지 않던데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 **방송사** : 남성용 제품도 판매하였으나 재고 소진으로 방송 판매가 종료되었고, 현재는 여성용 마지막 물량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행사 카드와 무이자 할부 개월 수는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수시로 변경되어 VOD에는 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방송 중에는 실시간 자막으로, 웹페이지에서는 배너 정보를 통해 당일의 행사카드, 무이자 카드사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로하는 결제, 제조국 등의 중요 정보를 자막 외에도 쇼호스트가 멘트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질감을 전달하는 부분을 통해, 고객의 쉬운 선택을 돕고자 하였는데 이 부분이 잘 전달되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사이즈 역시, 고객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진행자들의 명확한 멘트와, 자막 표기를 통해 구매를 돕겠습니다. 실제 상품의 제조국과, 브랜드의 탄생지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청자가 정보를 오인하지 않도록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데니스골프 구스다운 방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쇼호스트 분들이 착용하고 설명하시는 것 위주라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패딩팬츠의 경우 헝가리산 구스다운을 쓰고 솜털과 깃털 비율도 8대 2로 좋은 제품으로 입어보지 않아도 가볍고 따뜻할 것이 예상되는데, 할인되기 전 기본가격이 단품 79,000원이면 가격이 좋은 달인 것 같습니다. 평소 관촬은 골프웨어 패딩팬츠를 매우 찾기 힘든데, 디자인도 무난한 슬랙스와 같아 평상시에 입기에도 좋아 보이는 제품으로 보이고 쇼호스트 분들의 관련한 설명도 좋았습니다. 다만, 쇼호스트 분들의 체형이 55사이즈 정도의 비교적 날씬하고 키가 크고 아름다우신 분들이라 보기엔 정말 좋았지만, 주 시청 구매층이 중년 여성들일 것이라는 점에서 중년 여성 모델이 시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쇼호스트 분이 하이힐이 아닌 일반 골프화를 신은 착장도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실제 내가 일상생활에서 입었을 때 어떨까 생각하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실제 나와 쇼호스트분 착장의 괴리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방송사** :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코디와 다양한 사이즈 시착 이미지 등 고객이 실제 구매를 위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파악하여 방송에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여유 파자마 세트 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한 방송 중에서 가장 잔잔하면서도 상품의 소재, 착용감, 쫄쫄함 등을 차분하고 과하지 않게 설명한 방송이었습니다. 브랜드 이름 자체가 ‘여유’인 만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느끼는 여유와 휴식이라는 콘셉트의 스튜디오 연출부터 장면 구성까지 잘 드러나 겨울에 보기에 매우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착용한 상태로 일상 속 모습을 보여준 점이 특히 인상 깊었고, 일반 가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생활 장면을 볼 수 있어 공감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모델의 실제 착용 사이즈와 스펙을 함께 제시해 주어 시청자가 핏을 파악하기에 수월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달력이 좋았습니다. 가벼움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실제 무게를 함께 언급해 준다면 시청자가 체감하기에 더욱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기계세탁은 가능하다고 크게 표시해 주는데, 기계 건조 시 원단 수축 우려에 대한 경고는 상대적으로 작게 안내되고 있어 이 부분도 보다 눈에 띄게 표시하거나 방송 중 언급해 주면 제품을 오래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방송사** : 추후 제작 시 실제 무게에 대한 정보도 안내하도록 고민해보고요. 기계 세탁에 대한 정보와 함께 건조기 사용은 제한된다는 내용도 멘트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저도 여유 파자마 세트방송을 봤습니다.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앞세워 소재의 장점을 잘 표현하는 설명, 영상 셋팅 등에서 파자마라는 제품에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고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만 하고 쇼호스트들이 직접 가격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송 중반 “근데 얼마? 옆에 저가격”, “너무 싸다.”, “가격얘기 안하고 싶은데…” 등 에둘러 얘기하고 가격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화면 자료와 멘트가 잘 매칭되어야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 습득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중반 화면에서는 ‘지수진 쇼호스트 168cm 착용사이즈 90’이라는 자막에 멘트는 “편하다”, “가볍고 포근하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멘트로도 사이즈 안내가 되는 게 더 적합해 보입니다. 기계 세탁과 관련된 자막에서도 “몸에 안끼다. 부드럽다.”는 멘트보다는 세탁 관리에 대한 멘트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 **방송사** : 방송 자막은 순차적으로 순환 노출하다 보니 쇼호스트 멘트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추후 방송 리메이크 진행 시 화면과 맞는 멘트로 상품 특징점을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저도 여유 파자마 세트 방송을 봤는데요. 소비자가 직접 만져보지 않아도 촉감, 입었을 때의 느낌, 활용도 등을 과하지 않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왼쪽의 글자 정보란에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점이 제시되어 제품 선택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잘 구성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비비안 프리모션 퓨징 패키지 방송도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제품의 특징을 잘 표현하였는데 마네킹의 브라를 검지 손가락으로 꺾꺾 누르는 것이 내장 몰드의 부드러움을 드러내는 것 이상의 약간의 불편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 **방송사** : 마네킹을 활용하여 내장 볼륨패드가 편안하게 가슴을 잡아주며, 볼륨을 살려준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는데요. 추후에는 브라 제품 안쪽의 내장 부분으로 활용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상품 정보란에 상품 선택에 어려움 없이 정확한 정보를 노출하여, 빠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여유 동내의 방송을 봤는데요. 가격이 비싼 모달을 사용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품이라 인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단의 주 재료인 모달이 무엇인지 가볍게라도 설명해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속옷이라서 세탁방법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계 세탁시 건조기 사용 금지, 물빠짐으로 단독세탁이라는 설명이 자막에 너무 작게 설명되었습니다. 쇼호스트의 설명이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남성 내의 색상이 밝은 색이 없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셔츠나 하얀색 상의를 입었을 때 어두운 내의는 비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방송사** : 자연유래 프리미엄 소재라는 것을 최초 런칭 버전에서는 강조하였으나 현재 운영하는 세일 방송에서는 가격과 고객 활용 후기에 중점을 두고 연출하였습니다. 시청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탁 시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은 주신 의견 따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남성 상품은 짙은

색상의 선호도가 높아 흰색 보다는 블랙, 네이비 또는 그레이 계열이 많습니다. 추후 기획 단계에서 협력사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동내의의 경우 얇지만 따뜻하면서 신축성이 좋은 원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옷 안에 받쳐입기 좋게 손목이나 발목이 빠져나오지 않게끔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NFL 플리스 방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션상품의 특성상 소비자에게도 익숙한 외래어가 방송 내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말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외래어도 쇼호스트의 멘트나 자막을 통해 종종 노출되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은 시청자의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주의와 자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롭한 핏감, 데일리, 솟한 느낌, 유니크 등의 표현이 많았습니다. 그밖에 방송에서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눈에 띄지 않았으며, 비록 소비 타겟이 아니라도 구매의도를 일으킬 만큼 두 쇼호스트의 진행도 노련해 보였습니다.
- **방송사** : 평소 자주 사용하는 언어라 쉽게 지나쳤으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듣기 어렵거나 거부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 2월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폐 회 -